

## II. 經濟 指標 포커스

### 1. 輸出, 增加勢로 反轉

- (現況) 97년 4월 중 수출은 올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의 증가세를 보임
- (原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展望) 앞으로도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4월 중 수출,  
증가세로 反轉

- (現況) 올 4월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가 증가한 113.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1.6% 증가한 128.8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올들어 처음이며 수입 증가율보다 수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96년 6월 이후 10개월만임
  - 지역별로는 對선진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가 증가하여 1/4분기의 -14.9%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反轉됨
  -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올들어 가장 낮은 15.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주력 수출 품목  
의 수출 회복  
조짐

- (原因) 이러한 수출의 증가세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회복에서 비롯된 것임
  -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가 감소되었으나 1/4분기에 비해 감소율이 현저히 둔화되었는데, 이는 반도체의 국제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기 때문임
  - 16MD의 국제 가격은 97년 1/4분기에는 8.5~9.5 달러였으나 4월에는 8.5~10.0 달러로 상승하였음
  - 반도체를 제외한 기타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97년 1/4분기의 3.1%에 비해 4월에는 10.5%로 점차 회복 추세를 보임
  -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은 1월의 -53.1%에서 4월에

- 는 11.6%로 크게 상승하였음
- 철강의 경우도 1월의 -3.4%에서 4월에는 24.7%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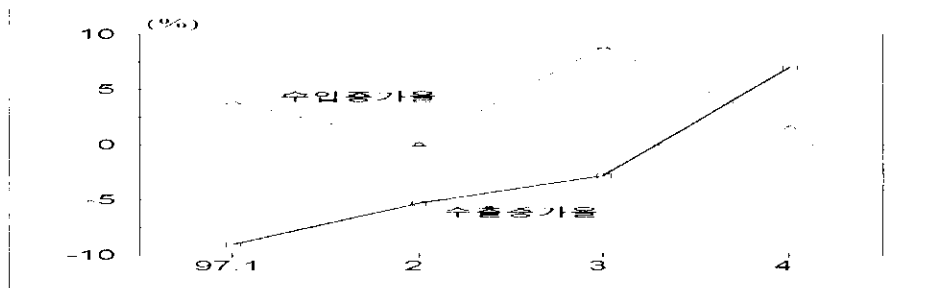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율 추이>

(전년 동월 대비, %)

	97. 1	97. 2	97. 3	97. 4
반도체	-42.0	44.2	-36.9	-14.2
자동차	-53.1	-14.1	2.5	11.6
철강	-3.4	16.6	8.7	24.7
석유화학	5.6	9.5	7.3	15.9
섬유·직물	5.6	4.5	8.5	10.0

자료 : 「4월중 수출입 동향」, 통상산업부

<수출·수입 증가율 추이>



수출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展望) 앞으로도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단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반도체의 경우 16MD의 수출 단가가 10 달러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PC 수요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의 경우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 노력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 철강은 세계 경기 호조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높은 상승세가 예상됨
- 수입 증가율은 국제 유가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율의 감소와 설비 투자의 감소로 인한 자본재 수입의 감소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임 병 수)

2. 勞動生産性<sup>1)</sup> 增加

○(動向) 96년도 (물적)노동生産성이 전년대비 12.4% 증가하면서 11.9%의 증가율을 기록한 명목임금 상승률을 70년대 이후 최초로 상회  
 ○(評價) 단기간에는 임금과 생산성 지표의 추이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두 지표간의 변화 추이가 장기적으로는 동행

96년도 노동생산성이 12.4% 증가하며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

- (動向) 96년도에 (물적)노동생산성이 전년대비 12.4% 증가하면서 11.9%의 증가를 보인 명목임금 상승률을 70년대 이후 최초로 상회<sup>2)</sup>
  - 명목임금은 70년대에 30%대, 80년대에 10%~20%대의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90년대에도 연평균 13% 수준의 상승 추세를 보여옴
  - 90년 이후 임금상승률은 11%대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노동생산성은 80년대까지는 한자리수 증가에 머물렀으며 90년대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10%대 이상의 증가율로 높아짐
  - 자본장비율의 상승, 생산효율성 증대도 노동생산성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96년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실업 증가와 임금인상 억제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됨
  - 95년에는 노동투입량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노동생산성도 높게 증가
  - 한편 96년은 산출량 증가가 6~7%대로 낮아진 가운데 노동투입량이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짐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증가와 임금인상 억제가 임금을 초과하는 노동생산성 증가를 초래

1) 노동투입량 한 단위당 산출량으로 정의되며 생산의 효율성 지표, 적정임금의 기준으로 사용됨. 노동투입량은 총노동량 또는 취업자수를 사용하고 산출량의 정의에 따라 물적노동생산성과(부가)가치노동생산성으로 대별됨. 한편, 노동생산성은 자본, 기술 등 여타 생산요소와 경제 환경에도 영향을 받음.

2)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비교 분석은 설정 지표의 개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임금은 명목임금, 실질임금, 단위노동비용 등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생산성도 물적노동생산성, 불변 및 경상 부가가치노동생산성 등으로 표시됨.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임금과 생산성 비교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실질임금과 실질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을 참고 지표로 사용함.

임금과 생산성 지표 추이가 단기간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상승률을 한차례 초과한 노동생산성을 근거로 한 임금 인상 요구는 부적합함

명목임금의 단기간 과도한 상승과 실질임금의 높은 상승에서 고임금 문제 초래

○ (評價) 단기간에는 임금과 생산성 지표의 추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두 지표간의 변화 추이가 장기적으로는 동행

- 국내 제조업의 경우 89, 92년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졌음에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더욱 높아짐
- 반면 86, 91년에는 생산성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었음
-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임금 상승과 생산성 증가가 시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96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을 한차례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하는 임금 인상 요구는 적합하지 않음
- 한편 장기적으로는 실질임금의 변화 추이와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가 동행하는 경향을 보임
- 71~95년까지 25년간의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은 연평균 8.3% 수준의 동일한 증가율을 보임
- 일본도 제조업 생산성이 68년 이후 크게 상승한 반면 임금은 73년부터 오르기 시작함
- 국내 경제의 고임금 문제는 명목임금이 단기간에 너무 상승했고 실질임금 상승률도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데 있음
- 제조업의 경우 87~95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9.9%에 달해 미국, 일본의 -1.0%, 1.4%은 물론 대만의 6.5% 보다는 높음
- 또한 동기간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도 4.4%를 기록하여 선진국, 대만(2.1%)과 비교해서도 높음

(민 주 흥)

<생산성과 임금 관련 지표의 최근 추이>

(전년 대비 증가율, %)

	91	92	93	94	95	96
물적노동생산성	13.8	10.7	8.0	10.1	10.4	12.4
부가가치노동생산성(실질)	13.4	10.1	8.6	9.6	9.4	-
명목임금(전산업, 월평균)	17.5	15.2	12.2	12.7	11.2	11.9
실질임금(전산업, 월평균)	7.5	8.4	7.0	6.1	6.4	6.6

주 : 노동생산성은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기준

3. 物價 安定勢 持續

- (現況) 9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原因) 경기 불황, 국제 원유가 안정, 공공요금(각급 학교 납입금)상승률 둔화 등이 주요 요인
- (評價) 최근 세계적인 물가 안정 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견고한 물가 안정 기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96년 4월의 소비자 물가는 과거에 비해 매우 안정된 수준

- (現況) 97년 4월 현재 소비자 물가는 과거에 비해 매우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97년 4월 전년말 대비 물가 상승률은 2.2%로 나타나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4월의 전년말 대비 물가상승률은 94년에 3.5%, 95년에 3.1%, 96년에는 2.9%였음
  -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었던 95, 96년과 비교해 불 때 공업제품과 집세 항목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높으나 공공요금을 비롯한 다른 부분의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임
  - 농수축산물 항목은 96년 大豊에 따른 가격 하락분의 반등, 집세 항목은 연초의 부동산가격 불안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

< 4월 중 전년말 대비 물가 상승률 비교 >

(전년말 대비 %)

	전체	농수 축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집세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	외식
1995년 4월	3.1	3.8	1.4	4.1	1.2	6.5	4.9	2.3
1996년 4월	2.9	1.2	1.9	3.3	0.9	5.0	4.3	2.6
1997년 4월	2.2	4.3	1.2	2.3	1.3	1.9	4.2	1.0

자료 : 「소비자 물가」, 통계청

97년 물가 안정은 경기 침체, 교육비 상승률 둔화, 원유가 안정 등에 기인함

- (原因) 경기 침체, 국제 원유가 안정, 교육비 상승률 둔화가 물가 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불황의 여파에 의한 내수 침체로 수요 견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약화
  - 원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의 안정도 국내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두바이(Dubai)産 원유의 경우 96년 12월에 배럴당 22 달러수준에서 5월 초 현재 17 달러수준으로 하락
  - 각급 학교 납입금 상승률 둔화로 3월 중 전월대비 교육비 상승률은 95년의 7.0%, 96년의 7.1%에서 97년 3월에는 4.1%로 낮아짐
    - 이는 95, 96년에 비해 97년 소비자 물가를 약 0.3%p 낮추는 효과가 있음

선진국과 비교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임

- (評價) 9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대에서 안정시키더라도 이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농산물 해거리 현상, 大選 등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97년 물가는 4%대에서 안정될 전망
  - 그러나 4%대의 물가 상승률은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또한 물가 안정 정책에 있어서도 인위적인 억제에 의존하는 등 후진적인 관행이 남아있음
  - 물가 안정과 이에 따른 임금 및 금리 안정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물가 안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이 태 열)

< 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교 >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81~85 평균	7.34	5.50	2.82	3.92	9.64	7.24	12.10
86~90 평균	5.42	3.96	1.38	1.36	3.08	5.94	9.38
91~95 평균	6.20	3.12	1.36	3.54	2.22	3.40	2.08

자료 : 「한국 주요 경제 지표」, 통계청, 1996. 9.

주: 물가상승률은 기간 중 연평균 물가 상승률의 단순 평균임